

사·부·대·중

역사드라마 신드롬

현대를 흔히 매스미디어 시대라 한다. 매스컴 없는 생활은 하루도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직접 매스컴과 만나는 시간을 내는 것이 꼭이 쉽지만은 않다. 산사에서 마천까지, 세상사 돌아가는 일은 매일 저녁 9시 뉴스 정도로 마감하고 불교계 소식도 주간 불교계 신문들 보거나 불교방송을 듣는 정도이다. 하루며 주중(週中) 드라마를 보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요사이 주중에 방영하는 드라마 상당부분이 역사물이라는 것은 주목을 끄는 일이다. 이것은 모 방송에서 역사를 다룬 것이 성공적인 반향을 얻은 후의 영향이라 한다. 요즘은 국내 제반 사정도 시문동하여 역사드라마에 시청자가 몰린다는 것이다. 통상 역사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나 그 내용은 거의 알려져져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연출자나 각색자, 연기자 등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차체에 좀더 시야를 넓혀 지켜봐 주십시오.



도각스님 <동국대 강사, 불교사>

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의 탈출,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의 발굴, 새시대 인식에 맞는 다양한 소재, 이러한 것 등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일전에 조선조 유명한 의사 허준을 다룬 드라마가 크게 히트했다. 기존의 단일한 재탕식의 각색에 만족하지 않고 발굴되지 않은 인물, 소재 등을 찾아 떠나간 것이 대중의 호응을 얻은 것 같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 역사의 재해석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고 해법을 찾기도 한다.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가 원하는 다양한 인물상이나 소재를 찾아 우리네 삶의 활로를 모색해보는데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의 삶은 희망에 충만해 있고 항상 감사하며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어야 한다(唯唯生一色 八面起清風). 역사가 그러한 현재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을 위해서 있을 때, 진정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되리라.

목탁소리

한명우 (취재1부 기자)

20일 중앙승가대 이사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동산 입대 및 고시원 운영업체인 법진유통과 안암학사를 5년간 고시원으로 임대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은 14일 중앙승가대 이전 대위위가 정대스님에게 안암학사에 관한 결정권을 넘긴 지 불과 6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와 교수협의회, 총동문회, 총학생회는 결의문을 내는 등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임대 계약에 대한 반대도 반대지만, 학교 당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은 처사에 깊은 불만을 표시했다.

중앙승가대의 한 관계자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법진사무처장이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계약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협의는 고사하고 사전에 통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없는' 총무원과 승가대

그러나 총무원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최고 결정권자인 이사장이 학교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더욱이 이전대책위에서 최종 결정권을 이사장에게 맡기기로 한 만큼 문제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총무원 관계자의 말대로 지휘체 계상 문제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이뤄져야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지, 권위를 내세울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앙승가대 정상화를 외친다는 것은 한낱 표두선에 불과할 뿐이다.

안암학사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승가대와 관련된 난제가 태산처럼 쌓여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의견교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불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등-어둠 사르고, 향로-번뇌 태우고

참불자의 길 공양구(供養具) 종류와 의미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릴 때 음식이나 꽃, 차, 향 등을 담는 그릇을 공양구(供養具)라고 한다. 불보살에게 올리는 공양 그릇이므로 최고의 솜씨와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것들이다. 향로, 사리구, 다기, 불병, 등, 꽃병, 바루 등이 그것이다.

향 공양을 올리는 공양구는 향로(香爐)다. 향로는 지극한 존경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향 공양이 공경공양으로서 널리 행해지면서 가장 대표적인 공양구로 자리잡아 항상 불단의 중앙에 배치된다. 향로는 쓰임새에 따라 불단에 봉안되는 '완형향로'와 들고 다니면서 의식하는 '병향로'로 나눌 수 있는데, 병향로는 마애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자들은 자신의 몸을 태워 향기를 만들어 내는 향 공양을 불전에서 행함으로써 자신 속에 내재된 번뇌방사를 말끔히 씻어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서원하며, 그 공덕으로 인하여 불보살

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는다. 등(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하게 하는 용기다. 불교에서는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에 등불을 밝혀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공명등'이라 부르기도 한다. 불전 앞에 밝힌 촛불, 법당의 걸려 있는 연등과 법당 앞마당의 석등 모두가 어둠을 사르는 공양구다. 이들 외에도 재료에 따라 종이등, 배등, 나무등, 구리등, 돌등, 자기등, 옥등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사리구(舍利具)는 사리를 탑 속에 봉안할 때 담는 용기를 말한다. 이 사리구는 직접 사리를 담는 그릇인 사리용기와 이 용기를 다시 감싸고 장엄하기 위한 외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불상과 경전, 장신구 등 각종 공양품도 함께 들어간다. 물병(水瓶)은 물을 담는 그릇으로 물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한 물, 감로수를 담은 병이라 하여 정병



<지극한 마음을 담아 행하는 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서원이 다. 향로에 향을 사르는 불자.>

목마름 없애주는 물병

바루, 출가정신의 상징

"진실한 공양은 마음"

했는데, 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자들은 이 바루로 탁발하는 수행을 행하기도 했다. 오늘날 사찰에서 행하는 바루공양은 탐욕과 집착을 떠난 출가정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다기(茶器)는 차문화의 발달로 공양구의 하나가 되었다. 종국의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통일신라 때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불교 선종의 발달과 함께 9세기부터 차공양은 필수가 되었고, 차물을 담아 올리는 다기 또한 중요한 공양구의 하나가 되었다. 공양의 참된 정신은 대승불교의 수행 덕목인 육바라미 중 보시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재물을 베풀어 주고,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자에게는 부처의 가르침을 베풀어 항상 마음을 여유롭게 하며, 두려움에 차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 주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을 사르고, 등불을 밝히려는 공양이 아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활 가운데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실한 공양이요, 공양구이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27

하운사(夏運使)에 대한 답서

도는 묵묵히 계합할 수 있을 뿐

"편지를 보니, 도(道)에 계합하면 하늘과 땅이 같은 곳이다. 뜻하는 바가 다르면 얼굴을 마주 보아도 초나라와 월나라 만큼이나 멀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지 못하는 묘(妙)함입니다. 그 전하지 못하는 묘함은 그대가 뜻을 내어 저에게 편지를 쓰고자 할 때, 붓을 잡고 종이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양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무엇 때문에 견인위(堅忍位)와 구경위(究竟位)를 기대하여 뒷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도리(道理)는 오직 증합(證驗)해 본 자라야 묵묵히 서로 계합할 뿐, 속인들에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때, 만들어진 물건은 온갖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그 재료는 전부 동일한 진흙이듯이, 앞에 나타나는 온갖 다양한 경계(境界)는 전부 도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도가 보는 작용을 하여 온갖 색깔의 경계가 나타나고, 도가 듣는 작용을 하여 온갖 소리의 경계가 나타나고, 도가 냄새 맡는 작용을 하여 온갖 냄새의 경계가 나타나고, 도가 맛보는 작용을 하여 온갖 맛의 경계가 나타나고, 도가 느끼는 작용을 하여 온갖 감촉의 경계가 나타나고, 도가 생각하는 작용을 하여 온갖 의식의 경계가 나타난다. 이처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할 때 이미 도가 그곳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떠나서 달리 도를 찾거나 닦는다면 실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허황된 이름과 관념을 세우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그러므로 '도는 뒤를 것이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만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찾지 않으면 도가 눈앞에 있지만 찾으면 도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마거사는 침묵하여 모든 보살들의 분별심을 잠재우고 도를 오롯이 드러내었으며, 이조화가 스님은 단지 절하는 것만으로 도를 드러내어 보리달마의 법을 계승하였으며, 임제 스님은 앞에 나타나는 자가 있으면 모조리 대기대용(大機大用)의 활발한 작용을 행하여 도의 존재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도는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눈앞에 사람에게서 이미 도가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헛된

모양과 이름만을 따라 다니는 어리석은 속인은, 도를 설명하고 활작용(活作用)을 보여주어도 오히려 이름과 모양만을 좇아서 더욱 번다한 망상에 빠질 뿐이다. 도의 비밀스런 존재는 오직 증합(證驗)해 본 사람만이 아직 입을 열지도 않고 붓을 들기도 전에 묵묵히 계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람 : 도(道)라니 무슨 더러운 소리냐?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여기에서는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티끌 만한 차이가 곧 하늘과 땅의 차이이며, 번갯불처럼 빠르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셋째 사람 :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넷째 사람 : 악(惡)한 소리 다섯째 사람 : 획(鳴)이 휘두르는 소리 여섯째 사람 : ... (침묵) 자, 독자 여러분! 이 여섯 사람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해도 저의 뜻과 계합할 못할 것이며, 다르다고 해도 저의 뜻과 계합할 못할 것입니다. 견처(見處)의 깊이는 여섯이 제각기 다르나 그 작용은 모두 같다고 말하지도 마시고, 침묵을 지키고 있지도 마시고, 남의 흉내를 내어서도 안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저의 뜻과 계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속지 않는 것이 귀한 사람입니다. http://www.mindfre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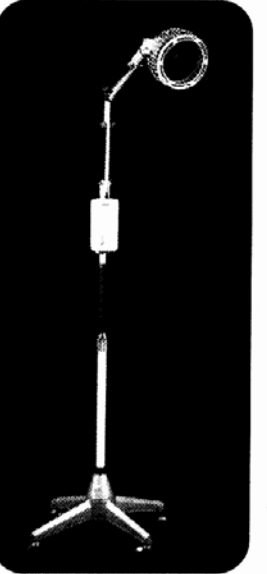


김태완 부신대 강사, 철학

생명의 빛 神燈(신등)의 秘密(비밀)공개!

(T.D.P.치료기) - 중국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파, 생체 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반도체파, 초단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 파괴된 염색체를 비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주며,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비로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신비에 있다.) 블랙디스크(Black Disk)란 TDP치료기의 핵심장치로서 인체구성의 기본 원소인 30여종 무기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증상별)

- 1.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기관지염으로서 깊은 잠을 못자는 분
2. 피부부종(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피부염, 습진, 무좀 화창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3.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4.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소변에 이상이 있는 이노 장애자
5.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증으로 악성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6.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멎고 걸음 증상 등
7. 전립선 기능장애와 생식기능 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8.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내막염 제증상)
9. 고질적인 치질·치루·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전세계 발명품 금상수상 (중국어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화학 200명 임상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병원용급 가정용) 한국 수입 품목 허가 번호 (01-506) 한국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곳 설치 사용중
미국, D.A에서 특정자기파 (T.D.P) 치료기 인정 (K875052)
유고 의료박람회 금상, 벨기에 부르셀박람회 은상
ISO (9001) 획득, 한국 95년도 보건 복지부 인정 수입
T.D.P. 치료기 대어 시업인기 /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소식 BLACK.DISK. 빛(光)과 파장을 이용한 신(新) 건강요법
현대문시에는 080을 누주세요!
대여점 및 취급점 모집 중



(수입원) (주) 휴먼라이프 상담전화 : 주,아 (080)522-2464 / H.P: (019)614-2550

성을 통한 깨달음!

두 권의 책과 CD로 구성된 이 세트는, 5년 전 동안 유일하게 성(性)을 영적인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포용해 온, 종교적인 전통인 탄트라(Tantra, 密教)의 수행 방법과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인간은, 성행위의 절정 속에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먼저, 성행위시 예고가 사라진다. 예고 없음이 창조된다. 잠시 동안, '나'는 없다. 잠시 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오르기때는 하나의 자기 소멸의 상태이다. 성의 경험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잠깐 동안 시간에서 시간 없음이 창조된다. 오르기때 속에서, 시간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있다. 현재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현재는 영원이다. 인간의 성에 대한 갈망은, 여자의 몸을 향한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열정은 어떤 다른 것을 향한 것이다. '예고 없음'을, '시간 없음'을 향한 것이다. -오쇼-



부록: 파트너와 함께하는 탄트라 CD 탄트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CD는 성(性)에 명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입문서 역할을 해 주며, 성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해 주는 '고대의 사랑의 과학(Tantra)'에 근거하여 오쇼의 제자들인 카비사, 의학 박사 디안 요기, 와두드, 알비나에 의해 만들어졌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적인 환희의 예술(The Art of Sexual Ecstasy)>의 저자인 마르코 아난드뿐만 아니라, <New Frontiers> 잡지의 객찬을 받은 바 있는 이 명상법은 아름다운 배경 음악과 함께, 준비와 정화의 단계를 거쳐,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표현되지도, 보이지지도,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았을 그런 황홀경의 에너지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 준다(총 65분 : 1. 지시어와 배경 음악 32:30 / 2. 배경 음악 32:00) * 세트 가격 18,000원

'탄트라 CD'에는 설명서와 함께 자세한 수행법이 담겨 있습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 www.goldenflower.com.kr /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